

# “족욕·청소·급식봉사로 새해업무 시작해요”

광주·전남 이색 시무식

터미널서 ‘5·18 진실’ 홍보

남광주시장 찾아 화재 점검

다리위서 새해 결의 다짐도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들이 갑오년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관행적인 시무식 대신 민생현장에서 봉사활동 등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직원들은 이날 오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상호 릴레이 악수를 통해 힘찬 새해 시작을 다짐한 뒤 민생현장에서 새해 첫 업무에 들어갔다.

대변인실은 광천동 버스터미널을 찾아 5·18 홍보만화인 ‘제국의 인습’을 나눠주는 한편 ‘유네스코가 말하는 5·18의 진실’ 유튜브 영상을 홍보하는 등 5·18의 진실을 적극 알렸다.

대중교통과 직원들은 시내버스 차고지를 돌며 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운전자들로부터 어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소방안전본부는 남광주시장을 찾아 화재 취약난방시설을 점검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했다.

지난해 우수 시책을 펼친 복지건강국과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실 등은 이날 우수시책 시상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봉사를 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아동복지시설인 형제사를 찾아 ‘시정 베스트 5’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으로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구입해 전달했다. 복지건강국은



광주시 복지건강국 직원 30여명이 갑오년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시무식을 대신해 광주시 동구 산수빈월경로당을 찾아 족욕봉사 등 한방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정책과 직원들은 경로당 2곳을 방문, 최우수부서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으로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족욕 봉사와 구강검진, 한방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광주도시공사 임직원들도 영구임대아파트를 방문, 대청소를 실시하고 독거 노인을 위로했다.

광주 북구청직원들은 34개 복지시설을 찾아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

정기호 영광군수와 직원들은 영광읍 일

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했다.

강진군은 경로당 배식봉사와 망호선착장·사조 방조제 해안도로 청소봉사를 실시했다.

해남군 산이면사무소 직원들은 해남의 새로운 관문인 해남과 목포를 연결하는 ‘산이교’에서 새해 결의를 다짐하는 이색 시무식을 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집권 2년차 ‘경제활성화·안보·정상화개혁’ 매진

朴대통령, 국정운영 구상… 김기춘 “2~3월 개각 고려 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공식일정 없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 내용, 공공부문 개혁을 포함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경제활성화 방안, 비서관 인사 등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운영=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활성화·안보·정상화개혁’ 등 ‘3대 국정운영 기조’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촉구해 온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여건은 마련됐다. 이처럼 개선된 환경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임기 중반 국정운영은 힘을 받기 힘들 수 있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변되는 정상화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정

상화 개혁의 핵심 분야인 공공부문 개혁의 경우 속도조절 여부와 국민에게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 사회적 공감 대를 끌어내느냐가 박 대통령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안보 부문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개각 및 비서관 인사=애초 정치권에는 2월말~3월초 개각설이 떠돌았다. 집권 2년

차의 심기일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갈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개각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각 보도가 끊이지 않자 김 실장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인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언론에 전달하는 창구인 대변인을 비롯, 현재 공석인 법무비서관과 여성가족비서관을 신속하게 인선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신설된 NSC 사무처장(정무직 차관급) 인선도 안보 국면에서 중요성이 있는 인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의 420만원 5000수익 최고위치, 전면내리석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응 1억)

### ★전대용봉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룸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의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 (응 3억, 보 1억)

### 전대정문원룸

룸 15개 월수의 500, 매가 6억3

### 전대예술대2분 코너앞

룸 13개 (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능 최고위치 월수의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 ★수완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 (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모아엘과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세계로 병원 대로면

상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신한공인증개사 ☎ 010-6670-9800

## 경매전문

###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 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균생, 기타)

###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기죽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 062-527-7600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 가능!
- 특례보증 / 헛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중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도대체 스피치 말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스피치 리더쉽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K.E.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신규 사업 자자와 증액 최소화 방침을 정해 예산을 축액하거나 신규사업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게 힘들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할떠 공조로 지역 예산 확보에 ‘올인’ 했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공을 돌렸다.

임 의원은 최근 교통체증이 심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광산 IC(총 연장 11km) 확장 사업비 9억원을 증액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도 했다. 정부가 예산을 없애기 위해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지연시키자 수차례에 걸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장을 찾아가 결과 발표를 이끌어내고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이다.

임 의원은 “이번에 정부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광주·전남지역 예산 증액이 결정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영광 한빛원전 대피로 건설사업(5억원) 등 19개 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라며 “그 결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사업비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등 730억여원의 국비를 증액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승병 실장 신현숙 국장 고성석 본부장

신국장은 감사, 회계, 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고본부장은 여수시 건설교통국장과 F1조직위 대외협력부장 등을 지냈다.

전남도는 2일 나승병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무총장을 본청 녹색성장정책실장에 전보하는 등 상반기 국장·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나 실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투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정년을 앞둔 보건복지여성국 배양자국장의 후임으로 신현숙 여성가족과장이 임명(직무대리)됐고, 공석이었던 광양만권행정개발본부장에는 고성석 과장이 승진·발령됐다.

한편 지방부이사관(3급)인 서복남, 배양자, 임영복 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